

<中韓辭典>의 뜻풀이 정보에 대한 고찰

都媛鈴*

<목 차>

1. 머리말
2. 중한사전의 사전학적 특징과 뜻풀이의 정보화
 - 2.1 중한사전의 사전학적 특징
 - 2.2 사전 뜻풀이의 정보화
3. 중한사전의 뜻풀이 검토
4. 뜻풀이 정보의 개정 방향
5. 맺음말

1. 머리말

고려대 민연관 <中韓辭典>은 1989년 출간부터 지금까지 한국인 이용자와 중국인 이용자 모두에게 가장 신뢰도가 높은 중한사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2002년 개정판이 나온 이후로 10년의 시간이 흘러 내용의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의 급변에 따른 매체, 이용자, 이용 방식의 변화에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한사전의 뜻풀이 정보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피되, 사전 속에 엄연히 존재하는 실수나 오류 등을 개별적으로 지적하는 방식을 벗어나 종이사전 편찬 시대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뜻풀이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포착하고 향후 개정 방향에 대해 거시적인 대안을 제시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중한사전의 사전학적 특징을 살피고 뜻풀이 항목이 사전의 구조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지에 대해 개략적으로 설명할 것이다. 뜻풀이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뜻풀이의 정보화 요건을 제시하고 이어 고려대 민연판 <中韓辭典>과 <中朝大詞典>¹⁾ 등 기간(既刊) 사전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문제들을 예시를 통해 분석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보완할 대략적인 방향으로 뜻풀이 원칙과 지침의 구성에 관해 제안하려고 한다. 이러한 고찰의 결과는 고려대 민연판 <中韓辭典>의 개정 방향과 지침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중한사전의 사전학적 특징과 뜻풀이의 정보화

2.1 중한사전의 사전학적 특징

사전은 편찬의 목적과 성격, 규모, 기술 태도와 방식, 어휘의 적용 범위, 언어의 수 등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Hartmann(1983)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중한사전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중한사전은 이질적인 언어를 연결하는 언어 간 사전(interlingual dictionary)이며²⁾ 그중에서도 이언어 사전(bilingual dictionary)³⁾이다. 이언어 사전과 같은 언어 간 사전은 기계 번역을 위한 사전과 인간 사용자를 위한 사전으로 나뉜다(Hartmann, 1983). 하지만 컴퓨터 기반의 사전 편찬 시

1) 이하 고려대 민연판 <中韓辭典>(1989/2002)은 <고려대>, <中朝大辭典>(2009)은 <중조>로 줄여 이를 것이다. 여타의 기존 사전들도 <동아>, <엣센스>, <진명> 등으로 줄여 이를 것이다.

2) 이에 대응하는 사전이 언어 내적 사전(intralingual dictionary)이다. 모국어에 대해 모국어로 기술하는 일언어 사전이 이에 속한다.

3) 'bilingual dictionary'는 이중언어 사전, 이중어 사전, 두 말 사전, 이국어 사전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되나 본고에서는 일언어 사전(monolingual dictionary), 다언어사전(multilingual dictionary/polygot dictionary)과 퀘를 같이 하여 '이언어 사전'으로 쓴다.

시스템이 갖추어지면서 둘 간의 격차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기계 번역을 위해 고안된 사전의 요건이 후자에도 고려되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둘째, 이용자의 요구라는 측면에서 중한사전은 한국인 이용자에게는 제2언어-제1언어형 사전으로⁴⁾ 이해용·번역용 사전이다. 즉 한국어 화자가 중국어의 언어 정보를 한국어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반면 중국인 이용자에게는 제1언어-제2언어형 사전으로 표현용·작문용 사전이 된다. 즉, 중국어 화자가 한국어로 말하거나 작문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전이다. <고려대>의 경우 표제어의 선정, 뜻풀이 어휘의 수준, 배열 방식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인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이해용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고려대>를 비롯한 기존 중한사전은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들이 자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용자의 유형과 그 목적 등에 따라 이를 엄밀히 구분하여 사전을 기획하고 편찬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 방식의 측면에서 두 언어 간 등가의 대응어를 제시하는 대역사전이다. 대역사전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당 번역어를 선택하거나 그에 준하는 설명적 대당 표현을 찾는 일이다.⁵⁾ 왜냐하면 서로 다른 언어 사이에는 개념적 체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등가라고 가정한 대당어의 의미적 영역이 유사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히 기점 언어에서 독특한 대상을 지시하는 문화 종속적 어휘는 목표 언어에서 대응하는 말을 찾기가 어렵다. 대역사전의 질적 수준은 두 언어 간 의미적 대응어를 얼마나 잘 일치시키고 적절한 설명적 대당 표현을 찾느냐에 있다.

넷째, 이용자의 용도를 고려하면 중한사전은 외국어 학습용 사전의 기능도 아우른다.⁶⁾ 중한사전은 한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가 중국어를 제2언어로

4) 제2/제1언어형 이언어 사전은 제2언어가 기점 언어(source language)가 되며, 제1언어가 목표 언어(target language)가 된다. 언어 간 사전에서 기점 언어는 표제어의 언어이며 목표 언어는 번역 대당어의 언어이다.

5) 대당 번역어, 즉 대역어는 단어 차원의 동의어나 유의어를 가리킨다. 반면 설명적 대당 표현은 구나 절 이상의 언어 단위로 표현된 동일 의미 기술을 말한다. 분석적 뜻풀이(analytic definition)와 상위언어적 뜻풀이(meta-linguistic definition)가 이에 해당한다.

6) 보통 외국어 학습자들은 자신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일언어 사전(monolingual

배울 때 소용이 되는 학습 도구이다. Hartmann(1983)에서 지적하였듯이 학습자의 학습 목표도 중요하다. 직업적 필요에 의한 것인지, 학문 목적을 위한 언어로 필요한 것인지, 흥미와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한사전은 그 내용과 규모로 볼 때 중급 이상의 중국어 실력을 가진 이용자에게 적합한 사전이다. 특히 고급 과정 이용자를 위해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언어 정보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다섯째, 규모면에서는 표제어가 10만을 넘어서는 중사전이다. <고려대> (2002)는 표제자 15,200자, 표제어 18만여 개를 등재하였다.

여섯째, 어휘의 적용 범위로 보아 한 언어의 전체 어휘 목록을 두루 포함한, 일반적·포괄적 사전이다. 중중사전의 표제어 규모나 적용 범위와 비교할 때 현대 중국어에서 쓰이는 표제자와 표제어를 대부분 수록한 사전임을 알 수 있다.⁷⁾

일곱째, 기술 내용상 백과사전적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언어 사전이다. 중한사전은 고유 명사나 전문어, 문화 종속적 어휘에 사실 정보를 부연한다. 하지만 중국어의 주요한 용법 정보를 자세히 기술하였다는 점에서 언어 사전이다.

요약하면 중한사전은 언어 간 사전, 이언어 대역사전, 중국어 학습자를 위한 이해용 사전, 포괄적 특성의 언어사전으로 정리된다. 본고에서는 특별히 <고려대>의 뜻풀이에 대해 이러한 사전의 특징에 기대어 살피려고 한다. 왜냐하면 <고려대>가 이후에 출간된 중한사전 편찬에 중요한 전거가 되었을 만큼 사전학적, 편찬기술적 측면에서 나름의 성과를 이룬 사전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려대>의 문제가 다른 중한사전에서도 반복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되

dictionary)보다는 외국어와 자신의 모어로 된 이언어 사전을 선호하며 학습 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Lew, 2002; Wingate, 2002). Atkins(1985), Béjoint(2010)에서는 폴란드인과 프랑스인 영어 학습자에 대한 연구 결과를, Han(2008), Ryu(2006)에서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7) <중조>나 <진명>, <동아>, <옛센스> 등의 기간 사전 역시 표제자와 표제어 규모가 거의 비슷하다.

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앞서도 언급한바, <고려대>를 개정하기 위한 방향타를 잡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관되고 반복되게 나타나는 뜻풀이의 여러 문제는 편찬자의 문제라기보다 종이사전 시대의 편찬 방식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략한 지침, 카드식 집필 방식, 집필자 개인의 능력에 기댄 사전 기술 등이 일관성이나 통일성, 구조적인 정확성 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하는 요인들이었다. 이런 배경과 문제를 직시하면서 현재의 사전 편찬 시스템과 사전학적 평가 기준, 사전 이용 환경의 변화 등을 만족시킬 만한 근거와 방향을 세우는 일이 현재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루려고 한다.

2.2 사전 뜻풀이의 정보화

사전의 모든 정보가 종이책에 박제된 상태로만 존재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미 사전의 내부 정보는 온톨로지, 어휘의미망, 시소러스와 연계하여 다양한 시도와 그 결과를 내놓고 있다.⁸⁾ 검색 위주의 전자 사전 서비스에서도 지속적인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다양한 언어 정보와 조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이사전 속의 뜻풀이를 현재의 전자 환경 및 다각도의 활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로 어떻게 수정, 가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향후 새로운 사전의 편찬이나 기존 사전의 보유 및 개정 작업 시에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정보의 기본 요건을 통해 뜻풀이의 정보화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보(information)는 자료(data)를 특정한 목적에 따라 가공하여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사실을 말한다. 하지만 정보가 정보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8) <우리말큰사전>의 뜻풀이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던 카이스트 어휘의미망(시정곤, 2005 등)을 비롯, <표준국어대사전>와 연동한 온톨로지 기반의 울산대 어휘의미망(옥철영, 2008 등), <표준국어대사전> 기반의 한국어 어휘의미망 구축을 위한 시도(김진해, 2007; 고석주, 2007; 이동혁, 2007, 이은령·윤애선, 2007 등)이 있다.

일정한 요소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정환 외(2007)에서 전달자와 수신자, 전달 방식, 전달 내용과 전달 형식 등 5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사전의 뜻풀이가 정보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편찬자가 이용자를 고려하여 종이책이나 디지털 기기를 통해 표제어의 의미를 일정한 형식 안에서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 정보의 기능적 요건이 뒷받침되어야 정보의 핵심 가치인 활용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전의 사용 환경 변화에 따라 전달 방식과 전달 형식에 대한 고려가 전달 내용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기 간행 종이사전에 기록된 뜻풀이 내용을 수정 보완해야 하는 현 상황 하에서는 기존 뜻풀이의 정보 가치를 높이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종의 가공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뜻풀이의 본질을 견지하면서도 활용 가능한 정보로 가공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등가성, 명시성, 분절성, 체계성이 확보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등가성이란 기점어(source language)와 목표어(target language) 간의 개념적 동일성을 말한다. 이언어 사전에서는 표제어의 의미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대응어를 찾는 것이 사전 편찬의 핵심적인 부분이 된다. 개념적 등가어를 얼마나 정확히 제시하였으나 하는 문제는 이언어 사전의 사전학적 평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다국어 어휘의미망의 기초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와도 관련된다. Svensén(1993, 2009)에서는 기점어와 목표어 간의 완전 대응 관계, 부분 대응 관계, 무대응 관계로 나누어 사전에서 등가성을 구현하는 방식을 보였다.

명시성은 뜻풀이 문장의 평이함, 현재성, 규범성, 보편성, 문법성 등을 뜻한다. 뜻풀이 항목을 채우는 말은 쉬운 말, 현재 쓰이는 말, 표준적인 말, 학습의 중요도를 고려한 말, 문법적인 말이어야 한다. 풀이말은 쉽고 꼭 배워야 하는 말, 두루 자주 쓰이는 말로 한정해야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집필 과정이나 향후 개정 과정에서 뜻풀이 어휘를 통제하는 작업은 등가성과 명시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⁹⁾

9) 이미 사전의 뜻풀이 어휘 통제에 대한 중요성은 여러 논의를 통해 강조된 바 있다. 황은하 외(2007), 옥철영(2008), Atkins & Rundell(2008) 참조.

셋째, 분절성이다. 이는 뜻풀이에 관여하는 모든 요소가 독립적인 항목으로 세팅되어야 함을 말한다. 최근의 사전 편찬은 전산 처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검색 결과를 도출하고 기계 가독형 사전, 워드넷 등과 연동하기 위해서는 의미 정보와 뜻풀이에 관여하는 형태, 통사, 화용 정보와 같은 여타의 미시 정보가 각각의 모듈로서 구획되고 조합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체계성이다. 분절될 수 있는 모든 요소는 일정한 순서와 방법에 따라 기술되고 통합, 편집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상세 지침을 통해 이루어진다. 대응 어구를 포함하여 형태, 통사적, 화용적 정보의 제시 방식은 정해진 형식에 따르며 뜻풀이의 순서와 표시 방식 역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표현된다. 체계성은 일관된 사전 처리를 위한 전제이다. 체계적인 구성은 예외와 오류를 줄이고 일정하고 통일된 결과물을 생산할 수 있다.

요약하면 등가성, 명시성, 분절성, 체계성을 갖춘다면 뜻풀이가 정보로서의 가치를 발휘하여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학문적, 실용적 활용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기존 중한사전의 뜻풀이가 등가성, 명시성, 분절성, 체계성의 측면을 어떻게 고려하고 있는지, 앞으로 무엇이 보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3. <중한사전>의 뜻풀이 검토¹⁰⁾

사전은 표제항(entry) 단위로 구성된 거시 구조(macrostructure)와 미시 구조(microstructure)의 이중 구조로 구성된다. 거시 구조는 표제어의 선정과 배열, 표제어의 유형, 제시 방식 등과 관련된다. 미시 구조는 거시 구조를 이루는 표제어(headword/lemma)에 대한 세부 집필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언어

10) 이 장에서 제시한 모든 사례는 <고려대>에서 발췌한 것이다.

사전에서는 발음이나 어원, 형태, 품사 및 뜻풀이와 용례, 관련어 정보 등을 포함한다. 중한사전의 미시 구조는 표제자/표제어¹¹⁾, 발음, 품사, 뜻풀이¹²⁾, 용례, 관련어, 참조 상자로 구성된다. <고려대>의 미시 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제자] 병음 훈·음 품사 뜻풀이 용례 관련어

[표제어] 병음 품사 사용역 뜻풀이 용례 관련어

검토의 주 대상인 뜻풀이는 표제어의 의미를 쉬운 말로 밝히는 미시 구조로, 사전의 메타언어적 기능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뜻풀이 항목은 편찬자가 가장 공을 들여 집필하는 부분이며, 사전 이용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항목이기도 하다(남기심, 2000). 하지만 사전에 제시된 뜻풀이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를 앞에서 제시한 4가지 요건에 따라 검토하겠다.

아래 예는 의미 대응 관계가 부정확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맺어진 경우로서 등가성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사례들이다.

(6) ㄱ. [家族] jiāzú ㉠ 가족. 동족.

[家人] jiārén ㉠㉡① 한 집안 식구. 일가. 집안사람. 「~亲戚; 일가친척」

...

ㄴ. [鱼·魚] yú 물고기 어 ①㉠ 물고기. 「两条~; 물고기 두 마리」 「~离不开水; 물고기는 물을 떠날 수 없다」 「鲤~; 잉어」 「鳊~; 쏘가리」 ...

[羊] yáng 양 양 ①㉠<動> 양. 「公~; 숫양」 「母~; 암양」 「羚líng~; 영양」 「绵~; 면양」 「山~; 염소」 「小~; 어린 양」 ②㉡ ‘祥xiáng’과 통용. ③ (Yáng) ㉠ 성(姓).

ㄷ. [表·⑪錶] biǎo 걸 표 ⑪㉠ 시계. 「怀huái~; 회중시계」 「手shǒu~; 손목시계」 「停tíng~; 스톱워치(stop watch) = 记jì秒~」 「钟zhōng~; 시계의 총칭」

11) 중한사전의 표제자와 그 아래 제시된 표제어의 관계는 사전학의 입장에서 엄밀히 말하자면 주표제어(main lemma)와 부표제어(sub lemma)에 해당한다.

12) 표제자의 경우 훈과 음이 제시된다.

- ㄷ. [咕嘟] gūdū ㉮ 펼펼. 풍풍. 벌컥벌컥. [물 따위가 끓거나 물줄기가 솟아나오거나 물을 급히 마시는 소리] 「他端起一碗水, ~~地喝了下去; 그는 물 한 대접을 들어 벌컥벌컥 마셨다」 「泉水~~地往外冒; 샘물이 풍풍 솟아 나온다」 「水~~烧开了; 물이 펼펼 끓었다」 = [鼓嘟] [喟都] ▷gū · du
- ㄹ. [残疾] cán · ji ㉮ [残废] [残废] cánfèi ㉮ 불구자. 신체장애자. 병신. 폐질자(廢疾者). 「~军人: 상이군인」 「~人奥运会: 신체장애자 올림픽」 「~金: 상이 연금」 || = [残疾]

(6ㄱ)은 대응어가 잘못 제시된 경우이다. 중국어 ‘家族’에 대응하는 한국어로 ‘가족’과 ‘동족’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어법은 ‘가문’과 거의 동일하다. 오히려 ‘家人’이 한국어 ‘가족’과 동일한 개념이다.¹³⁾

(6ㄴ)은 일대다 대응을 일대일 대응으로 처리한 경우이다. 중국어 ‘魚’는 ‘물고기’ 외에도 ‘생선’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중국어 ‘羊’은 ‘염소’를 가리키기도 한다.

(6ㄷ)에서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완전 대응 관계로 잘못 제시하였다. 표제어 ‘表·錶’는 한국어에서 ‘시계’와 완전 일치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손목시계’와 일치한다. 총칭으로서 ‘시계’와 일치하는 말은 용례에 제시된 ‘钟表’이다.

(6ㄹ)의 경우 표제어의 대역어 간 동의 또는 유의 관계가 설정되기 어려운 경우이다. 중국어 ‘咕嘟’에 대응된 한국어 ‘펼펼’, ‘풍풍’, ‘벌컥벌컥’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이다. 이들의 의미 영역은 한데 묶이기 어려우므로 다의로 처리하여 개별 의미마다 완전 대응이 되도록 배열하는 방편이 적절하다.

(6ㄹ)은 기점 언어 간의 의미 차이를 정확히 고려하지 못해 대응 관계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진 경우이다. <고려대>에서 ‘残疾’와 ‘残废’는 동의 관계로 묶었다. 둘 다 장애인을 가리키는 단어이지만, 전자는 중립적인 의미로, 후자는 속되고 낮추는 의미가 있다. 또한 전자는 정신 지체 장애인도 가리키지만 후자

13) 박종한(1999)에서는 이러한 대역의 오류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중국어의 소리를 한국어로만 옮겨 적은 데서 비롯하였다고 비판하면서 한국인 편찬자의 한자어 지식의 간섭한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는 신체 장애인만을 가리킨다.

아래 예는 중국어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는 경우이다.

- (7) ㄱ. [复决权] fùjuéquán ㉠ <法> 의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하여 국민이 재차 투표해서 표결하는 권리.
 ㄴ. [壁牌] bípái ㉡ 삐파이. [마작 용어. '洗xi牌(패를 뒤섞음)' 다음에 네모꼴이 되게 모든 패를 줄지어 놓은 것]→[起qǐ牌]
 ㄷ. [旗袍(儿)] qípáo(r) ㉢ 중국 여자가 입는 원피스 모양의 의복. [원래 만주 여인들이 입었으나 후에 대중화되었으며, 옷깃이 높고 치마는 터져 있음]

(7ㄱ)은 중국어 '复决权'에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어 종차와 유개념어로 구성된 분석적 뜻풀이를 한 경우이다. 대역어를 제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지만 분석적 뜻풀이와 상위언어적 뜻풀이도 많이 등장한다.¹⁴⁾

(7ㄴ)의 대역어에서 중요한 문제를 몇 가지 제기할 수 있다. 첫째, '삐파이'를 '壁牌'의 대당 번역어로 제시하였으나 실제 우리말에는 이러한 단어가 없다. 병음을 한글로 음역한 '삐파이'를 마치 한국어에 존재하는 단어처럼 만들었다. 둘째, 부연 설명에서 중국어와 한국어의 경계를 넘나들며 풀이되었다. 기점 언어인 중국어를 목표 언어인 한국어로 기술하는 이언어 사전임을 감안하면 최대한 한국어로 기술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풀이는 중국어를 잘 모르는 이용자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된다. 제한된 경우에만 기점 언어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¹⁵⁾

(7ㄷ)은 개신의 필요성이 확인되는 사례이다. <고려대> 편찬 당시에는 표제어 '旗袍'의 개념이 우리말에 어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적 뜻풀이 방식

14) 4장에서 언급하겠지만, 이언어 사전이라 하더라도 등가의 대응어만을 제시할 수 없다. 일반적인 정의 방식인 분석적 뜻풀이를 비롯, 상위언어식 뜻풀이에 대한 지침이 보완되어야 한다.

15) '壁牌'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석적 풀이와 관련어 정보로 처리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壁牌] bípái ㉡ 마작에서, 패를 뒤섞은 다음에 네모꼴이 되게 모든 패를 줄지어 놓는 일. <유>起牌. <참>洗牌.

을 선택하였다. 현재 ‘치과오’는 외래어이므로 대응어로 제시할 수 있다.

위의 예를 요약하자면 대응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경우, 대응어 간의 의미 영역이 다른 경우, 대응어가 없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대응 관계를 맺어주는 방식과 세부 사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뜻풀이의 명시성이 떨어지는 경우로, 어려운 말이나 비규범적인 말로 풀이된 사례이다.

- (8) 가. [跟儿] gēnr ㉠ 발뒤꿈치. ㉡ (말·소 따위의) 뒷발굽. 박차. ㉢ 사물의 말단. ㉣(창의) 물미.
 - 나. [座标镗床] zuòbiāo tángchuáng ㉠ <機> 지그 보링 머신(jig boring machine). 좌표 내면 연마반. = [准具镗床] [钻zuàn具母机] [钻zuàn模镗床]
 - 다. [填字谜] tiánzímí ㉠ 크로스워드 퍼즐(crossword puzzle). 십자말풀이. ...
 - 르. [/和(哧, A)籲] hé 화목할 화 ㉡ ㉢ ...와. ...과. ㉣ 다수의 동사가 하나에 통합되는 경우. [‘和’의 위치는 ㉡와 같으며, 주로 서면어(書面語)에서 쓰임]

(8가)의 4번에 제시된 대응어 ‘물미’는 일상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는 단어이다. 부연 설명을 해 주지 않으면 이용자는 국어사전을 찾아야 할 것이다. (8나)에 대응된 ‘지그 보링 머신’과 ‘좌표 내면 연마반’은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나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백과사전>에도 실리지 않은 말이다. 지나치게 어려운 전문어는 백과사전적인 설명을 붙이거나 표제어 수준에서 정리될 필요가 있다. (8다)에 제시된 대응어에는 외국어가 먼저 제시되어 있고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십자말풀이’를 뒤에 제시하였다. (8르)의 ‘서면어’는 한국어에 없는 말이며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는 그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문어체’, ‘글말’ 등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은 규범성이 떨어지는 말로 뜻풀이된 경우이다. 이에는 비문법적인 말,

표준어가 아닌 말, 비속어 등이 속한다.

- (9) ㄱ. [嘴急] zuǐjí 囗 먹고 싶어 급해하다. 걸근거리다. 「对不起! 我们太~啦, 没有等您; 미안합니다! 우리가 너무 걸신이 들어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 ㄴ. [/俄] é 갑자기 아 || A) ㉠ 囗 홀연. 곧. 금새. 갑자기. 「~顷; ↓」 「~而日出, 光照海上; 곧 해가 돌아, 바다 위를 비추다」
- ㄷ. [阿里曼] Ālǐmàn 囗 아리만(Ahriman). 조로아스타교의 악신(惡神).
- ㄹ. [拉马杆儿] lāmǎgānr 囗 (장님 안내자가) 장님을 이끄는 막대기. 「~的; (막대기로) 소경을 이끄는 사람. 장님 안내자」

(9ㄱ)의 뜻풀이 문장은 의미가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문법적인 표현이다. (9ㄴ)이나 (9ㄷ)에는 잘못된 표기형이 제시되어 있다. ‘금새’는 ‘금세’가, ‘조로아스타교’는 ‘조로아스터교’가 올바른 표기이다. (9ㄹ)에는 시각 장애인을 낮추어 이르는 ‘장님’이 뜻풀이 어휘로 쓰이고 있다.¹⁶⁾ ‘拉马杆儿’에는 시력을 상실한 사람을 낮잡는 부정적 어감이 없으므로 중립적인 메타언어로 풀이하는 것이 적절하다.

다음은 분절성을 고려하지 않은 뜻풀이의 사례들이다. 대부분 표제어에 대응하는 등가의 의미소와는 상관없는, 기타 등등의 요소가 뜻풀이란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은 표제어의 실제 용법에 나타나는 발음, 형태, 통사, 의미, 화용 정보들이다.

- (10) ㄱ. 발음 정보
[一字(儿)] yīzì(r) 囗 ② 한 마디. 한 자. [‘儿化’되는 경우가 드뭅]
- ㄴ. 형태 정보
[诨·诨] hé 화평할 화 || 囗 ② 화목하다. 화평하다. [주로 인명(人

16) 뜻풀이 어휘의 중립성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건 최근의 일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소수자를 향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려는 시도를 <표준국어대사전> 웹판(2008)에 반영하였다. 또한 성차별에 관한 사전 기술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 논의로는 이정복(2007)이 있다. 홍종선 외(2009)에서는 사전 용례에 나타난 지역, 연령, 직업, 성별 등에 관한 사회적 편견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名)에 쓰임]

ㄷ. 통사 정보

[/將·將] jiāng 장차 장 ㉠개 ...을. ...를. [‘把bǎ’처럼 목적어를 동사 앞에 전치시킬 때 쓰임] 「~他请来; 그를 오라고 청하다」 「~门关; 문을 잠그다」

[轧根儿] yàgēnr ㉠㉡㉢ (주로 부정문에 사용하여) 본래. 원래. 전혀. 근본적으로. 「~我就不知道这件事; 전혀 나는 이 일을 모른다」

ㄹ. 의미 정보: 백과사전적 정보

[杨花萝卜] yánghuā luó·bo ㉠<植> 무의 일종. [크기가 작고 백색이며 껍질이 두껍다. 늦가을에 씨를 뿌려 늦봄에 수확함] = [小水萝卜]

ㅁ. 의미 정보: 유래

[羊肚儿手巾] yángdǔr shǒujīn ㉠㉡ 수건. 타월. [타월이 ‘羊肚’(양의 위장)의 표면과 비슷한 데서 이렇게 부름]

ㅂ. 화용 정보: 사용 시기

[暗红] ànhóng ㉠㉡ 암홍(색). ㉢ 혁명의 기운이 잠재하다. [연안(延安) 시대에 쓰이던 말]

[洋纱] yángshā ㉠㉡ (옛날, 수제 면사에 대하여) 기계로 짠 면사.

ㅅ. 화용 정보 : 문체

[好戏] hǎoxì ㉠㉡ 불 만한 것. 불거리. [반어적으로 쓰여 난감한 일이나 국면을 가리킴] 「这回可有~看了; 이번에는야말로 정말 불 만한 일이 있을 거다.」

ㅇ. 관련어 정보

[/浆·漿] jiāng 노 장 ㉠ (배의 짧고 작은) 노. [굵고 큰 것은 ‘槽cáo’라 함]

아래 예들은 상이한 층위의 정보가 한데 제시되어 있다.

(11) ㄱ. 문체 정보 + 형태 결합 정보

[好意思] hǎoyì·si ㉡ 태연하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뻔뻔스럽게. [흔히 반문 또는 ‘不~’의 형태로 쓰임] 「做了这种事, 亏他还~说呢;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도 그는 뻔뻔스럽게 말한다」

ㄴ. 어휘 부류 정보 + 화용 정보(사용 지역)

[/将·將] jiāng 장차 장 ㉠개 ...으로(써). [주로 성어(成語)나 방언(方言)에서 쓰임] 「~错就错; ↓」 「~鸡蛋碰石头; 달걀로 돌을 치다」

위의 예에서 보았듯이 대응 의미소 앞뒤에 다양한 언어 정보가 기준 없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표제어의 뜻풀이에 관여하는 요소이지만 각각이 층위가 다른 어휘 정보이므로 뜻풀이 구조를 이루는 모듈로서 구획되어야 한다.

각각의 하위 모듈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상위의 구조 안에서 통합되기 위해서는 체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아래 예들은 체계성과 일관성이 없는 경우이다.

- (12) ㄱ. [攤] ㉓ ㉔ 웅덩이. 무더기. [액체가 괴어 있는 것이나 진흙·똥 따위가 질펀하게 깔린 것을 세는 데 쓰임] 「一~水; 물 한 웅덩이」 「一~泥; 진흙 한 무더기」
- ㄴ. [度] ㉓ ㉔ (온도·밀도·농도 따위의) 단위. ㉔ ㉕ <數> 호·각의 계산 단위. ㉕ ㉖ 경도·위도의 단위. 「北京在东经一百一十六~半; 북경은 동경 116도 30분에 위치하고 있다」 ㉖ ㉗ <度> 킬로와트(kilowatt). 「电diàn~; 킬로와트 = 千瓦(特)小时」
- ㄷ. [爱卫会] àiwèihuì ㉘ ㉙ ‘爱国卫生运动委员会’(애국 위생 운동 위원회)의 준말.
- ㄹ. [八五计划] bāwǔjìhuà ㉚ 제8차 5개년 계획. [‘第八个五年计划’의 준말]

(12) ㄱ과 ㄴ에서 ‘攤’과 ‘度’의 기술에 나타난 핵심적인 문제는 첫째, 대역어 제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국어의 양사는 계산 단위로 쓰이는 말로, 우리말의 단위성 의존 명사와 유사하다. 때문에 대역어는 단위성을 갖는 명사류가 제시되어야 한다. ㄱ에서는 등가의 대응어로,¹⁷⁾ ㄴ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상위 언어로 풀었다. 둘째, ㄴ에서 중국어 ‘度’는 우리말 ‘도’에 대응하는데 이를 적시하지 못했다. 셋째, 특히 ‘度’의 3번과 4번은 ‘단위’라는 상위 언어로, 6번은 ‘킬로와트’라는 대응어로 제시하였다. 넷째, 용법의 차이를 나타내는 방

17) 물론 제시된 대응어 처리도 문제이다. 앞에서 지적한바, ‘웅덩이’와 ‘무더기’는 동일 환경에서 대체 가능한 유의어가 아니다. 의미와 용법이 다른 말로서 다의어 처리가 되어야 한다. 더구나 ‘웅덩이’는 단위 명사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잘못 제시되었다. ‘액체가 괴어 있는 웅덩이를 셀 때 쓰는 말’로 수정해야 한다.

식이 통일되지 않았다. ‘度’ 3번의 ‘온도·밀도·농도 따위의’에 괄호를 넣었고 4번의 ‘호·각의’에는 괄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다섯째, 풀이말의 비밀관성이 드러난다. 대응어가 없는 경우 ‘~의 단위’로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12ㄷ)에서는 단체명의 약어인 표제어에 대해 원어를 밝히는 것으로 뜻풀이를 대신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당 원어가 표제어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 원어를 모르는 이용자는 뜻을 알 길이 없다.

(12ㄷ)과 (12ㄷ)은 동일 정보가 각각 다른 항목에 제시된 경우이다. (12ㄷ)에서는 뜻풀이로 제시되었던 ‘~의 준말’이 표제어 ‘八五计划’에서는 보충 설명란 ‘[]’에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종종 발견된다.

- (13) ㄱ. [噯] ·bo 험담할 ㄱ ㄱ 권유·건의·청구·명령 등의 어기를 나타내며, 용법(用法)은 ‘吧’와 대체로 같음. 대개 방언이나 조기 백화(早期白話)에 보임. 「大家努力干~; 모두들 열심히 합시다」 →[吧·ba] [罢·ba] ▷bō
- ㄴ. [得] ·de 득 ㄱ 동사의 뒤에 쓰여 동작이 이미 완성된 것을 나타내, ‘了’ ‘到’ ‘在’와 같은 뜻으로 쓰임. [주로 조기 백화(早期白話)나 방언에 많이 보임] 「出~门来; 문을 나섰다」 「说~头里; 처음으로 말해 두다」 「回~家来; 집에 돌아왔다」

아래 예는 표제어의 형태, 통사 정보가 경우에 따라 뜻풀이 앞에도 나오고 뜻풀이 뒤에도 나타난다.

- (14) ㄱ. 결합 정보가 선행하는 경우
[罢·罷] bà 파할 ㄱ ㄱ ‘也yě’와 결합하여 복합사(複合詞)로 쓰여, ‘...해도 좋고 또 ...해도 좋다’의 뜻을 나타냄. 「去也~, 不去也~; 가도 좋고 안 가도 좋다」 ㄱ 뒤에 ‘了·le’와 결합, 문장 앞에 쓰여 ‘괜찮아·좋아·될대로 돼라·됐어·하는 수 없다’ 등의 뜻을 표시함.
- ㄴ. 결합 정보가 후행하는 경우
[给·給] gěi 줄 ㄱ ㄱ 피동(被動)·처치(處置)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문장의 술어동사 앞에 직접적으로 쓰여 어기(語氣)를 강하게 함.

[보통 ‘叫’ ‘让’ ‘把’와 함께 쓰이며 생략해도 됨] 「裤腿都叫露水~湿透了; 바짓가랑이가 몽땅 이슬에 푹 젖었다」

(14ㄱ)에서는 상위언어식 뜻풀이 방식을 선택하면서 선행절에 형태 결합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14ㄴ) 역시 상위언어식 뜻풀이로 기술하였으나 결합 정보는 부가 설명란에 보였다. 풀이한 표현 방식도 각각 다르다. 조사의 문법 기능을 풀이할 때 ㄱ에서는 ‘~와 결합하여 -로 쓰여, ...의 뜻을 나타냄’처럼 ‘결합 정보 - 범주 정보 - 대역 표현’의 순서이다. ㄴ에서는 ‘의미 정보 - 결합 정보 - 의미 기능 정보 - 결합 정보, 통사 정보’의 순서이다.

<고려대>에서 선행/후행 부가 설명란은 대역어부터 용법, 의미에 대한 부연 설명과 해설, 문법상의 특징에 이르기까지 뜻풀이 본칸에 제시하기 어려운, 기타 등등의 정보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잡동사니 항목이 되었다. 적용 범위와 순서, 제시 방식에 대한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 표제어의 발음, 형태, 통사, 의미, 화용 정보들은 일정한 형식과 순서에 따라 기술되어야 뜻풀이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아래 예들은 뜻풀이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들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경우이다.

- (15) ㄱ. [野生] yěshēng ㉠ 야생(하다). 「~动物; 야생 동물」 「~植物; 야생 식물」
- ㄴ. [矮化] ǎihuà ① ㉠ 왜소화하다. 낮게 평가하다. 「他们刻意要将我的人格~; 그들은 애써 나의 인격을 낮게 평가하려고 한다」 ② ㉠ 왜성화(矮性化).
- ㄷ. [跟] gēn 발꿈치 근 ① (~儿) ㉠ (발·구두·양말 따위의) 뒤꿈치. 「脚后~; 발뒤꿈치」 ... ② ㉠ 따라가다. 쫓아가다. 계속되다. 「~我来; 나를 따라 오시오」... ④ ㉠ 동작의 대상을 이끌어 들일 때 쓰임. ㉠ ...와[과]. 「有事要~大家商量; 일이 있으면 모두와 상의를 해야 한다」 「我~他在一起工作; 나는 그와 함께 일을 한다」 ㉠ ...에게. ...를 향하여. 「你这主意好, 快~大家说说; 너의 이 생각이 좋은데, 어서 모두에게 좀 말해 주어라」

ㄷ. [男] nán 사내 남 A) 男① 남자. 남성. 「~学生; 남학생」 「一~一女; 일남 일녀」 「~演员; 남우(男優)」 「~病房; 남자 병실」 「~护士; 남자 간호원」 ...

(15ㄱ)의 ‘野生’은 구별사로서 동사 용법이 없다. 명사라 하더라도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일부 명사 앞에 쓰여’라는 제약 정보가 제시되어야 한다.

(15ㄴ)의 ‘矮化’와 같은 경우에는 품사와 대역어가 실제 용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중국어에서 ‘矮化’는 왜소화의 의미로 명사로도 쓰이는데, 동사로만 처리했다. ‘왜성화’의 의미는 농업 분야의 전문어이다. 이에 대한 세부 사용역 정보가¹⁸⁾ 부가되어야 한다.

(15ㄷ)의 ‘跟’은 개사로 쓰일 때 유정 명사와 결합한다. 이에 대한 정보가 모두 빠져 있다. (15ㄷ)의 ‘男’에 대응어를 자립 명사 ‘남자’와 ‘남성’을 두었으나 중국어 ‘男’은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구별사이다. 일부 명사 앞에 쓰여 ‘남자’나 ‘남성’의 뜻을 더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기술이 덧붙여야 한다.

위에서 뜻풀이가 견지해야 할 등가성, 명시성, 분절성, 체계성을 갖추지 못한 예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의 시발점은 불충분하고 세밀하지 못한 지침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고려대>, <진명>, <동아>, <중조>의 일러두기에서 뜻풀이 항목을 살피고 부족한 점을 짚어본 다음¹⁹⁾ 그에 대한 수정 방향을 제안할 것이다.

(16) <고려대>의 일러두기²⁰⁾

18) 사용역이란 시간과 공간, 규범성, 도구, 화청자 관계, 계층과 태도 등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변이형을 말한다(도원영, 2008). 옛말, 방언, 비표준어, 문어와 구어, 높임말과 낮춤말, 계층어, 비속어 등이 이에 속한다.

19) 사전에서 실수나 오류를 찾는 일은 아주 쉬운 일이다. 하지만 학문적 논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오류나 실수가 광범위하고 일관되게 이론적 근거의 유무를 근거로 제기되어야 한다.

20) 이 부분은 「中韓大辭典 執筆指針」(1983)의 내용과 일치한다. 사전의 규모와 정보량을 감안할 때 지침의 내용이 무척 간략하다. 일러두기가 사전 이용에 관한 간략한 안내의 글이라면 집필 지침은 편찬자를 위한 대원칙과 세부 원칙, 사례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밝혀 놓은 글이라고 할 수 있다.

1. 석의의 기본 방침

- (1) 석의는 설명 방식에 의한 풀이를 지양하고 되도록 일반적으로 대응하는 우리말로 옮겼으나,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에는 설명을 하였다.
- (2) 고의(古義)는 간략하게 석의하였다.
- (3) 학술어·전문어 등은 우리말 대응어를 주고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명을 덧붙였다.
- (4) 중국의 역사·문화·정치 등과 관계되는 용어는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하였다.

(17) <동아>의 일러두기

- 1. 뜻풀이는 서술 방식을 지양하고 되도록 일반적으로 대응되는 우리말로 옮겼으나, 대응하는 우리말이 없을 경우에는 설명을 덧붙였다.
- 2. 고대(古代)의 뜻은 되도록 간략하게 풀이하였다.
- 3. 학술 용어나 전문 용어 및 순수히 중국 고유 문화와 관계되는 표제어는 우리말 대응어로 풀이하고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설명을 덧붙였다.

(18) <중조>의 일러두기²¹⁾

- 2) 조선어에 해당한 대역이 없거나 대역을 주고도 필요한 설명을 주어야 할 것은 알기 쉽게 해석을 주었다.
- 5) 올림말이 다른 올림말의 어느 제한된 뜻갈래와만 같을 때에는 그 뜻갈래의 번호만 주고 대역 혹은 설명을 주지 않았다.
 예: 【殞灭】 yǔnmìe → 隕yǔn灭②
- 6) 올림말의 개별적인 뜻이 제한된 언어 환경에서만 쓰이거나 대역으로 그 뜻을 다 표현하지 못할 때에는 괄호 안에 설명을 달아 주었다.
- 8) 대역에서 올림말이 말체에서 쓰이는 것은 (말), 글체에서 쓰이는 것을 (글), 고체는 (옛), 사투리는 (사), 외래어는 (외)로 표시해 주었다.

(19) <진명>의 일러두기

- ①동형(同形) 이음(異音)의 이의(異義)의 올림말은 가장 앞의 올림말에 집중시켜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뒤에 나오는 올림말은 앞의

21) 표제자의 뜻풀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정리한 부분이다.

올림말로 가보도록 「ㄹ」로 표시하였다.

②의미나 용법상의 차이로 인한 영역은 ①②③으로 구분하였으며, 다시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a①b②c③으로 나누었다.

(20) <현대>의 일러두기에는 뜻풀이에 관한 설명이 없음.

<고려대>를 제외하고는 집필 지침이 아닌 일러두기를 통해 살펴보았기 때문에 뜻풀이에 관한 편찬의 원칙과 세부 지침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지만 일러두기를 통해서 해당 사전이 뜻풀이에 임하는 바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집필 원칙과 세부 방법 역시 파악할 수 있다.²²⁾ 위에서 살핀 뜻풀이에 관한 원칙 설명은 첫째, 전체적으로 너무 소략하다. 대사전이 아니기 때문에 간결한 양식을 선호할 수는 있지만, 사전의 핵심인 뜻풀이에 대한 안내라고 하기에는 모자라는 부분이 많다.²³⁾

둘째, 뜻풀이의 원칙과 유형, 제시 방식 등에 대해 명확한 구분을 하지 않았다. 기본적인 원칙이 언급되고 나면 뜻풀이의 유형과 제시 방식, 동음이의어와 다의어 구분, 다품사의 처리, 어법 등의 부연 설명 등이 차례대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획이 분명하지 않은 것은 집필 지침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데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뜻풀이 방식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고려대>나 <동아>의 내용을 정리하면 설명적 풀이보다는 대응어를 제시하는 풀이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두 가지를 동시에 제시하였으며 문화적 맥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연 설명을 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설명적 풀이나 대응어 제시 방식에 대해 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어 사전 이용자에게는 충분한 안내라고

22) 홍종선 외(2009)에서는 사전의 일러두기가 사전의 본문을 효율적으로 읽어낼 수 있도록 전체적인 편찬 방침과 세부 처리 방식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23) <진명>의 경우 표제어의 풀이에 대해서 위에서 제시한 내용이 전부이다. <중조>의 경우 표제자와 표제어의 뜻풀이를 한데 묶어 처리하고 있다. 자립적인 용법이 있는 표제자는 표제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함 관계에 있지만 표제자가 표제항을 이끄는 거시 구조의 대표이므로 상위 범주라고 할 수 있다. 표제자와 표제어는 구분하여 지침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다.

보기 어렵다.

4. 뜻풀이 정보의 개정 방향

앞에서 거론한 문제의 요소를 제거하고 뜻풀이를 정보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원칙과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²⁴⁾ 뜻풀이가 등가성과 명시성, 분절성, 체계성을 갖추고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가? 이언어 사전에 요구되는 뜻풀이의 원칙을 제안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²⁵⁾²⁶⁾

(21) <중한사전> 뜻풀이의 기본 원칙

- ㄱ. 기점어와 목표어 간의 의미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 ㄴ. 뜻풀이용 어휘는 쉬운 말, 생활에서 쓰이는 말, 규범적인 말, 문법적인 말이어야 한다.
- ㄷ. 뜻풀이에 관여하는 발음, 형태, 통사, 의미, 화용 정보는 독립적인 항목으로 구성하되, 체계적이고 일관된 순서와 방법에 따라 기술되어야 한다.

(21ㄱ)은 등가성에 대한 부분으로 사전 뜻풀이의 기술적 특성을 표현한 것이다. 의미 대응 방식과 풀이 방식에 관한 세밀한 지침이 부가되어야 한다.

24) 본고에서는 뜻풀이 정보 기술의 기본 원칙과 지침 보완 방향을 개략적으로 제안하고 세부 원칙과 지침은 후속 연구를 통해 발표하고자 한다.

25) 이언어 사전의 뜻풀이 원칙에 대한 논의로는 Hartmann(1983), 박종한(1999), 정영국·조미옥(2003), Svensén(2009), 정영국(2010) 등이 있다. 박종한(1999:161)에서는 사전 뜻풀이의 조건으로 정확해야 하며 표제어보다 쉬워야 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고려대 <중한대사전>(1995)를 대상으로 뜻풀이 오류와 용례 번역의 오류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26) Landau(2001)에서는 본질적인 의미의 우선성(priority of essence), 대체 가능성(substitutability), 단순성(simplicity), 간결성(brevity), 중의성의 제거(avoidance of ambiguity)를 좋은 뜻풀이의 요건으로 제시하였다.

(21ㄴ)은 명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이다. 등가성을 전제로 한 풀이말을 채택할 때에 고빈도 학습용 기초 어휘, 전문어보다는 일반어, 표준어, 문법적인 표현 등의 기준에 준한다. (21ㄷ)은 분절성과 체계성을 위한 원칙이다. 동일 개념만을 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부가해야 하는 다양한 항목들, 즉 품사에 관련된 속성, 형태적, 통사적 각종 제약, 세부 의미 영역, 시간과 공간, 문체적 특징, 뉘앙스 차이 등등이 대역 표현에 덧붙는다. 이들의 특성을 기술하고 순서와 통합 제시 방법을 따로 구성하도록 한다.

뜻풀이 정보의 기술 방향에서 등가성과 명시성, 분절성, 체계성을 각각 구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뜻풀이 방식에 대한 기술, 뜻풀이용 어휘의 조건, 뜻풀이에 관여하는 언어 정보의 기술 방법, 뜻풀이 제시 방식 등이 지침에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²⁷⁾

- 뜻풀이의 원칙
- 뜻풀이의 유형: 대역어 제시 방식,²⁸⁾ 분석적 뜻풀이 방식, 상위언어식 뜻풀이 방식
- 다의어의 구분과 배열²⁹⁾

27) <고려대>의 지침에서 뜻풀이(釋義)에 관한 부분을 소제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석의의 기본 방침
2. 의미 영역 구분
3. 의항 구분
4. 동의어 · 반의어 · 참조어
5. 단순어
6. 용례
7. 보충 설명
8. 품사
9. 방언
10. 음역어 · 의역어 · 음의역어
11. 석의 중의 중국어 사용
12. 석의 중의 중국어 발음

28) 참조어 제시 방식은 등가성 원칙에 따라 최대한 동일한 개념을 가진 대역어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은 동의어로서 다국어 어휘의미망의 주요 노드에 입력되는 정보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의미 관계로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시소러스와 온톨로지에 연동될 수 있다.

29) 다의어 처리에 관련하여 <고려대>의 지침에 따르면 다의어의 경우 빈도순으로 배열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는 어떤 기준을 통한 빈도순인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지침과

- 뜻풀이에 관여하는 여타 정보: 발음 정보, 형태 결합 정보, 통사적 제약 정보, 의미 정보(백과사전적 정보, 상하위어, 계열어, 뉘앙스 차이 등), 화용 정보(시기, 지역, 영역, 화/청자, 도구, 문체 등), 관련어 정보
- 뜻풀이 제시 방법: 순서와 배열, 기호 사용 세칙
- 품사별 뜻풀이: 명사, 대사, 수사, 양사, 동사, 형용사 등
- 어휘 부류별 뜻풀이: 전문어, 방언, 음역어, 의성어, 성구와 속담, 헐후어 등

뜻풀이의 원칙, 유형, 다의어의 구분과 배열, 뜻풀이 제시 방법에 관한 지침은 모든 표제어에 해당하는 일반론이다. 반면 품사별 뜻풀이와 어휘 부류별 뜻풀이는 일반론에서 다루지 않은 세부적인 방법과 예시가 필요하다. 품사별 뜻풀이와 어휘 부류별 뜻풀이를 따로 설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관된 기술을 해내기 위해서이다. 십만이 넘는 표제어에 관한 내용이 정보 가치를 발휘하려면 일관성 있는 기술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5. 맺음말

앞에서 중한사전이 한국인 학습자를 위한 이언어 대역 중사전의 특징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사전의 뜻풀이가 정보로서 가치를 가지기 위한 요건으로 등가성, 명시성, 분절성, 체계성을 내세운 다음, <고려대>를 비롯한 기간 중한사전의 뜻풀이 처리에 관한 원칙을 살피면서 그간의 사전이 뜻풀이를 정보로서의 가치를 구현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 언급하였다. 일러두기에 제시된 뜻풀이 원칙의 부실함을 지적하였고 실제 처리 과정에 나타나는 무

는 달리 실제 <고려대>에 적용된 기준은 빈도순보다는 여러 기준이 복합되어 나타난다. 기본 의미-파생 의미 순서, 어휘 형태소 - 문법 형태소 순서, 품사 순서 등이다. 이언어 대역사전의 경우 다의어의 제시 방식은 기점 언어인 중국어를 중심으로 하느냐, 목표 언어인 한국어를 중심으로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점어의 다의 순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한국인 이용자를 고려한 기준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정영국(2010)에서는 영한사전의 뜻풀이 배열 순서가 기점어의 중요도 순서로 제시되지만, 목표어의 의미와 일치시키기 위해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일관성, 어려운 뜻풀이, 잘못된 뜻풀이 등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보였다. 이어 향후 <고려대>의 개정 작업에 돌입하기 전에 세워야 할 원칙과 방법론 마련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을 몇 가지로 제시하고 개략적인 방안을 밝혔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은 후고로 미룬다.

향후 연구와 작업의 핵심은 고려대 <中韓辭典>의 장점을 유지하되, 사전 이용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면서 개정의 방향타를 잡아가느냐에 있다. 정보 처리 기반의 전산사전학(computational lexicography)의 측면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 參考文獻 >

- 고석주(2007), <어휘 의미망과 사전의 뜻풀이>, 《한국어어미학》 27집, 1-21쪽.
- 金媛熙(2004), <<中韓辭典>實詞釋義研究>, 北京大 博士研究生學位論文.
- 김진해(2007), <<표준국어대사전>의 관련어 정보와 어휘관계 기반 사전 기술>, 《한국어어미학》 27집, 23-50.
- 김혜경·윤애선(2006), <동사 어휘의미망의 반자동 구축을 위한 사전정의문의 중심어 추출>, 《언어와 정보》 10호, 47-69.
- 도원영(2008), <국어사전 표제어의 사용역 정보에 대한 고찰>, 《우리어문연구》 34집, 33-57.
- 도원영·왕보하(2008), <한중사전의 관용구 기술에 관한 비판적 고찰-학습자 사전학적 관점에서>, 《문법 교육》 9호, 1-33.
- 도원영(2010),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뜻풀이 정보>, 《한국어사전학》 16호, 106-136.
- 박종한(1999), <중한 사전의 뜻풀이와 용례>, 《중국언어연구》 9집, 159-182.
- 시정곤(2005), <한국어 어휘망을 바탕으로 한 개념 지도 구축 방안에 대하여, 《이중언어학》 29호, 145-163.
- 김준수·옥은주·이동수·옥철영(2001), <사전 뜻풀이 말뭉치에서 추출한 개념 어휘 및 의미 자질>, 《사전편찬학연구》 11-2호, 93~113.
- 서태길·김혜령(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문법 및 뜻풀이 정보>, 《민족문

- 화연구》 51, 119-166,
 옥철영(2008), <국어사전 뜻풀이에 사용된 어휘 분석>, 《제14차 한국사전학회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유현경·남길임(2008), 《한국어 사전 편찬학 개론 - 사전 편찬의 이론과 실제 -》, 서울: 역락.
- 이은령·윤애선(2007), <표준국어대사전의 동사 정보 개선을 위한 연구 - 한국어 어휘 의미망의 구축에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 《한민족어문학》 51호, 157-194.
- 이정복(2007), <한국어 사전에 나타난 성차별 언어 연구>, 《한국어학》 34호, 257~300.
- 정영국·조미옥(2003), <대응어에 나타난 영한사전의 오류 (1)~(8)>, 《중등우리교육》 2003년 4~12월호.
- 정영국(2010), <「옥스퍼드 영한사전」 편찬 작업 및 본 사전의 특징>, 《한국사전학》 16, 269~295.
- 최호섭·옥철영(2002), <한국어 의미망 구축과 활용 - 명사를 중심으로 ->, 《한국어학》 17호, 301-329.
- 한정한·남경완·유혜원·이동혁(2007), 《한국어 정보 처리 입문》,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황은하·안의정·박유현·성연숙(2008), <『연세현대한국어사전』의 뜻풀이용 어휘 통제를 위한 기초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22, 77~107.
- Atkins, B. T.(1985), Monolingual and bilingual learners' dictionaries: A comparison, In R. Ilson(Ed), *Dictionaries, Lexicography and Language Learning*, 15-24, Oxford: Pergamon Press.
- Atkins, B. T., Rundell, M.(2008), *The Oxford Guide to Practical Lexicogra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Béjoint, H.(2010), *The Lexicography of Englis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n, Myung-Soon.(2008), *Korean EFL learners' use of dictionaries: Their beliefs, lookup strategies, and use*. Doctoral dissertation, Sonngsil University.
- Hartmann, R. R. K.(1983), *Lexicography: Principle and Practice*, 《사전 편찬의

- 원리와 실제》 서태길 외 공역(2008), 서울: 제이앤씨출판사.
- Landau, Sidney. I.(2001), *Dictionaries: The Art and Craft of Lexicography*(2n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w, R.(2002), *A study in the use of bilingual and monolingual dictionaries by Polish learners of English: A preliminary report*, in Braash and Povlsen(Eds), 759-763.
- Ryu, Jesun(2006), *Aspects of dictionary use by Korean EFL college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Svensén, B.(1993), *Practical Lexicogra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vensén, B.(2009), *A Handbook of Lexicograph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參考辭典 >

- 강식진 외 공편(2001), 《進明 中韓辭典》, 서울: 진명출판사.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편(1989), 《中韓辭典》,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편(2002), 《中韓辭典(전면개정판)》,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편(2009),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서울: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 국립국어원 편(2008), 《표준국어대사전》, www.korean.go.kr.
- 박영종 편(2008), 《現代中韓辭典》, 서울: 교학사.
- 손예철 편저(2008), 《東亞 Prime 中韓辭典》, 서울: 두산동아.
- 최봉환 외 편(2009), 《중조대사전(中朝大詞典)》, 북경: 민족출판사.
- 편집부 편(2002), 《옛센스 中韓辭典(제3판)》, 서울: 민중서림.

< 中文提要 >

高麗大學民研《中韓辭典》初版于1989年，再版于2002年，是韓國中韓辭典中最有影響力的一部詞典。但是近十年間語言的變化和信息處理的發展也在影響着辭典編纂界，《中

韩辞典》急需改版的呼声越来越高。

本文重点考察了中韩辞典的释义，跳开了仅仅罗列和批判辞典中存在的错误这样的简单方式，从释义的结构体系出发，分析了纸质辞典编纂时代无法充分考虑到的实际问题，并对今后改版的方向提出了一个宏观方案。

本文首先考察了中韩辞典的辞典学特征，说明了释义部分在辞典结构中所占的地位。其次提出释义的信息化条件，即等价性、明示性、分段性、系统性，并以《中韩辞典》和《中朝大词典》等重要辞书为例分析辞典的释义问题，如缺乏一贯性、释义过难和释义错误等等。最后针对以上问题提出释义的原则和编纂指南的构成方案。

今后研究和编纂的核心将是在保持《中韩辞典》优点的同时，及时预测辞典使用环境的变化，由此决定改版的方向，并且积极利用以信息处理为基础的电算词典学技术。

关键词：中韩辞典，释义，信息，等价性，明示性，分段性，系统性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1.3.31	2011.4.28	2011.5.18	2011.5.20	2011.5.31